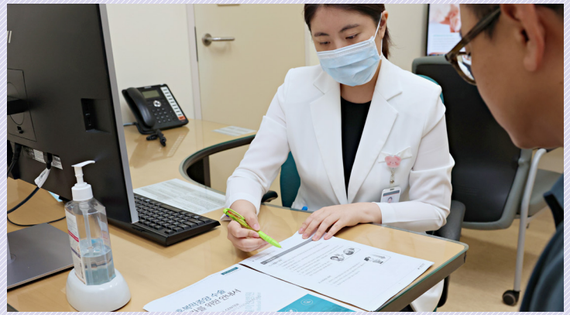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가 치료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치료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아산넷에서 교육자료 포털 '메디게이션'에 접속하면 교육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안내문과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제공하거나 SMS로 전송할 수 있다. 사진은 7월 29일 외래간호팀 차현송 대리가 메디게이션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 환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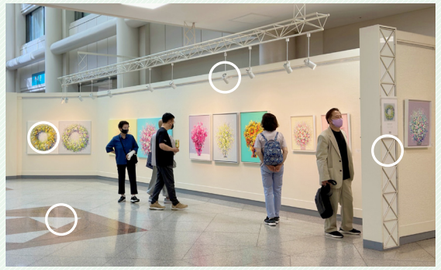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28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발레리나 환자의 미소'**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심장병원간호팀 지하영 주임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8월 15일(목)
발표 제732호(2024년 9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박선유(외래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상미(내과간호1팀)
송윤서(진단검사의학팀)
이수연(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박상아(임상시험센터)
우연주(응급간호팀)

캔버스 북커버
김명기(외래간호팀)
김민영(심장병원간호팀)
정성현(방사성의약품제조소)
조경희(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박소현(수술간호팀 F2로젯 유닛)
유정희(암병원간호1팀)
이수빈(내과간호1팀)
조성택(외과간호1팀)
황선주(진단검사의학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30 2024. 8. 1

뱃속 쌍둥이 살리는 태아내시경 300례

태아치료센터가 최근 쌍태아 수혈증후군 치료를 위한 태아내시경 수술 300례를 달성했다. 쌍태아 수혈증후군은 태반 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혈관을 통해 한 쪽 태아에서 다른 태아로 혈액이 공급되며 발생한다. 한 쪽 태아는 혈액이 부족해 성장저하와 양수 부족을 겪고 다른 태아는 혈액 과다로 심장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쌍둥이 모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태아치료센터는 현재까지 ▲태아내시경 수술 300건 ▲태아 션트 수술 657건 ▲고주파 용해술 248건 ▲태아 수혈 219건 등 고난도 치료를 시행하며 국내 태아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7월 9일 태아치료센터 의료진이 태아내시경 수술 300례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개인정보 유출 막고 인공지능 예측 성능 높여
06 AMC IN(人)sight 성실히, 끈기있게 환자와 찾아가는 길
08 잡(job)·담(談)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간들
12 문화·생활정보 일상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46 **디자인인쇄** 큐라인

태아내시경 치료 생존율 89% 세계 최고 수준

(왼쪽부터) 산부인과 이미영 부교수, 원혜성 교수가 쌍태아 수혈증후군 치료를 위해 태아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 태아치료센터는 쌍태아 수혈증후군 치료를 위해 태아내시경 수술을 적극 시행해왔으며 최근 국내 최다인 300례를 달성했다.

쌍둥이를 임신한 배 모 씨(30세)는 임신 20주차에 진통이 느껴져 인근 산부인과를 찾았고 쌍태아 수혈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배 씨는 6월 말 곧바로 우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산부인과 이미영 부교수가 태아 상태를 확인한 결과 뱃속 쌍둥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 원혜성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응급 태아내시경 수술을 시행했고, 최근 검진에서 쌍둥이 모두 건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아내시경이 도입되기 전에는 양수과다 증상을 보이는 태아 쪽의 양수를 반복적으로 제거해 산모의 증상과 태아 상태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고 조기 진통을 예방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태아내시경 수술은 태아 간의 혈류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두 태아 모두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우선 양쪽 태아를 연결하고 있는 혈관을 없애기 위해 엄마의 배꼽을 통해 자궁 안에 태아내시경을 삽입하고, 레이저로 혈관 사이에 흐르는 혈액을 응고시켜 태아 간의 혈류 연결을 차단한다. 레이저 치료가 끝나면 늘어나 있는 양수를 빼내 압력을 낮추는 치료가 이뤄지는데 보통 1시간 이내면 모든 치료가 끝난다. 태아치료센터의 최근 태아내시경 치료 후 태아 생존율은 89%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수술 이후 14일 이내에 양수가 터지거나 조기진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2% 이내로 매우 낮았다.

태아치료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원혜성 교수는 "태아내시경 300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선정과 급여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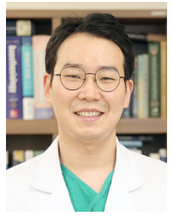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 경영진 방문

송종민 심장병원장, 요쿵켕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장(앞줄 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 경영진과 의료진이 7월 18일 심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는 싱가포르 내 최대 의료 그룹인 싱헬스의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우리 병원 심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에는 요쿵켕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과 우리 병원 송종민 심장병원장, 정성호 판막질환센터소장, 남기병 디지털심장병원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병원의 심장 연구 환경 및 주요 연구 추진사항 등이 소개됐으며, 임상 진료 측면에서의 잠재적 협업 영역 탐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막고 인공지능 예측 성능 높여



이상욱 조교수

서준교 조교수

인공지능 기술을 대규모 의료 데이터 연구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심의 및 규제 등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욱 조교수, 비뇨의학과 서준교 조교수팀이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기술을 사용하면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없애면서 예측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동형암호는 암호화 상태에서도 데이터 분석, 연산, 모델링 등을 가능하게 한 차세대 암호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각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에서 비심장 수술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 34만 1,007명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데이터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한 뒤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형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기관의 원시 데이터만을 학습시킨 모델과 비교했다. 그 결과 정확도가 각각 95.7%와 88.0~94.2%로 나타나 동형암호 기술을 사용한 다기관 예측 모델이 원시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보다 수술 후 사망률 예측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조교수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임상 데이터에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규모 다기관 임상 연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의료정보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 「지미르 메디컬 임포메틱스」에 최근 게재됐다.

로봇 이용해 흉부 접근 기관절개·재건술 성공

김용희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희 교수팀이 전 세계 단 3건만 보고된 기관 내 희귀종양을 로봇수술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흉부로 접근하는 기관절개 및 재건술에 로봇을 도입한 건 국내 처음이다. 수술 외에도 호흡기내과 지원준 부교수의 고난도 기관지내시경 시술과 병리과 안보경 임상전임강사의 진단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뤄졌다.

종양으로 인한 기도 폐색으로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던 구 모 씨(남, 71세)는 내시경 시술로 종양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찾았다. 지원준 부교수는 우선 환자의 호흡곤란을 완화하고 조직 채취를 위해 중재기관지내시경을 시행했다. 종양을 가능한 만큼 제거 후 스텐트를 삽입해 기도를 확보했으며, 이때 제거된 종양 조직을 병리과 안보경 임상전임강사가 분석했다. 그 결과 매우 드문 형태의 양성 종양인 사구맥관근종으로 확인됐다. 사구맥관근종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등에 흔히 생기는 사구종 중에도 혈관이 발달되어 있고 평활근 조직 분포가 많다. 중심부 기도에 생기는 사구종은 흔치 않은데, 특히 기도 내 사구맥관근종은 전 세계적으로 증례가 세 건만 보고됐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의료진은 출혈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잔존하는 종양을 모두 제거하고 출혈점을 없애기로 했다. 김용희 교수팀은 환자가 폐렴으로 인한 전신 쇠약 상태이며 종양의 위치가 우측 무명동맥 기시부에 위치해 통상적인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기관절개 및 재건술을 시행했다. 종양은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완전히 제거됐다.

김용희 교수는 "환자의 병변과 상태를 고려했을 때 로봇수술은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정밀한 기관지 문합이 가능해 최적의 치료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양집중지원팀 심포지엄

7월 20일 열린 영양집중지원팀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3회 영양집중지원팀(NST) 심포지엄이 7월 20일 동관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인 암환자와 중환자의 영양 상태 및 지원 ▲외과적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영양지원 ▲소아의 만성신부전 및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영양관리 등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영양지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남궁정만 영양집중지원팀장(소아외과 부교수)은 "영양집중지원팀은 최상의 영양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더 나은 영양치료와 영양지원 활동의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해 몽골·아랍 문화특강

7월 22일 열린 몽골·아랍 문화특강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몽골·아랍 문화 특강이 7월 22일 동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몽골 의사 에네렐트 씨와 방송인 새미 라샤드 씨가 각각 몽골과 아랍의 문화, 의료 문화 및 환자의 특성, 기본 언어 표현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카데미운영팀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글로벌 어벤저스' 과정의 일환으로 열렸다. 글로벌 어벤저스 수강생, 접점 부서 의료진, 몽골·아랍 문화에 관심 있는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리뉴서울안과	10,000,000원
백성환	100,000,000원
부재훈	100,000,000원
시재건설㈜	100,000,000원
에어테크엔지니어링㈜	100,000,000원
이정준	5,000,000원
㈜에스엠아이이엔지	20,000,000원
김진희	1,000,000원
박지원	300,000원
우래경	100,000원
이윤희	10,000,000원
이정준	5,000,000원
장현종	1,000,000원
㈜에스엠아이이엔지	30,000,000원
코리안리재보험㈜	4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김소호	1,000,000원
김영성	1,585,000원

연구

이진미 안나	10,726,000원
하비스㈜	60,000,000원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고성희/전병선	100,000,000원
송상우	300,000원
이황미	100,000원

불우환자 지원

심장병원 외래	300,000원
전제현	240,506원

- 2024년 7월 14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동정

김중곤 교수, 양지명 조교수 최우수포스터상

김중곤 교수

양지명 조교수

안과 김중곤 교수와 양지명 조교수가 7월 20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망막학회 학술대회에서 '근시견인황반병증 환자를 위한 수술 중 안구광각단층촬영 보조 새로운 L자 황반돌륭을 이용한 황반돌륭술'을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정동환 교수

윤영인 부교수

김상훈 조교수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교수, 윤영인 부교수, 김상훈 조교수가 6월 27일부터 3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정동환 교수와 윤영인 부교수는 '생체간공여자의 우측 간 절제술 후 문맥 합병증의 해부학적 위험인자: 4,720건의 결과 분석'을 주제로 플레너리 세션 최우수발표상을 받았고, 김상훈 조교수는 '간 재이식의 장기 생존율 및 위험 요소'를 주제로 프리 페이퍼 세션 최우수발표상을 받았다.

김지애, 정윤희 대리 학회서 수상

약제팀 김지애, 정윤희 대리가 최근 학회에서 수상했다. 김지애 대리는 6월 21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과계 중환자에서 구리, 아연, 비타민 D 결핍과 임상 결과 간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구연상을,

김지애 대리

정윤희 대리

정윤희 대리는 6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점마약류 추적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연제상을 받았다.

김동규 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려금

마취통증의학과 김동규 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이공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김 연구원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수의 지도로 '심정지 환자의 실시간 신경학적 예후 예측에 최적화된 전이학습 기반 연속 뇌파 인코더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지연 과장 우수포스터상

영양팀 민지연 과장, 김초롱 주임, 이명화 차장, 박민아 유닛 매니저, 강신숙 팀장이 7월 6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임상영양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영양불량 평가를 위한 영양불량 글로벌 리더십 이니셔티브(GLIM) 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아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진료부장	김잔디	임 : 병원장

- 이상 1명, 2024. 8. 1부.

신간안내

저속노화 식사법

지은이 : 정희원
가격 : 19,000원
페이지 : 308쪽
펴낸곳 : 테이스트북스
발행일 : 2024년 7월 26일

노년내과 정희원 조교수가 노화를 연구하며 20여 년 동안 직접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발전시킨 '한국형 마인드(MIND, 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식사법'을 소개하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마인드 식사법은 채소, 통곡물, 생선 중심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된 대시(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식단의 장점만을 합친 식사법이다. 이 책은 한국형 마인드 식사법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21가지의 건강 밥상도 소개하며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노화 예방 건강 식단을 찾도록 돕는다.

성실히, 끈기있게 환자와 찾아가는 길

심장혈관흉부외과 윤재광 조교수

윤재광 조교수는 폐암과 식도암, 흉선암을 수술하는 의사다. '수술 실력은 기본이고 환자의 삶까지 들여다보는 외과 의사'를 꿈꾸며 환자에게 가장 해를 덜 미치는 수술법을 고민하고 연구한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길을 되묻고 무뎌지기 쉬운 순간에도 마음을 다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의 가치를 매일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하는 힘

"어릴 때부터 막연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점에서 매스컴에 비친 흉부외과 의사는 멋있어 보였고 임상 실습 때 마주한 수술 환자의 예후는 드라마틱했습니다. 경주마처럼 한 길만 보며 달렸죠." '이쯤 하면 됐지'라고 여기는 순간 환자 상태가 뒤바뀌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했다. 매일 다양한 케이스와 각기 다른 결과가 기다리는 출근길이 설렜다. 그러나 담당 환자가 늘수록 합병증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환자도 생겨났다. 그들을 치료하는 데 뾰족한 답은 없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 경과가 좋지 않으면 그다음 수술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내가 왜 이 길을 택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 수없이 생각했죠. 지난해에는 내적 에너지가 고갈된 듯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다들 의사는 신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모든 환자를 완치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이대로 그만두면 제가 축적해 온 경험을 또 다른 초보 의사가 쌓아야 하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될 거예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환자에 대한 의지로 되갚으라는 조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기 폐암 환자가 찾아왔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이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암을 발견해 암울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윤 조교수는 치료에 최선을 다할 테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라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수술 일정도 최대한 앞당겼다. 그런데 수술 직전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난항에 빠졌다. "수술을 미루자니 폐암 4기로 넘어가고, 코로나 후유증도 염려됐어요. 고심 끝에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4시간 동안 흉강경 수술에 집중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도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분이 자녀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제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필사적으로 얻은 나만의 무기

임상강사 시절, 외과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통계학 석사에 도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목표가 있으니 해야 할 것이 보였고 끈기 있게, 성실히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수술하는 과에서 열심히 연구한 점에 좀더 박수를 쳐주셨어요." 윤 조교수는 우리 병원 20여 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수술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를 토대로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가 이어졌다. 수술의 득과 실을 분석하면서 보다 객관화된 시각으로 치료 전략도 세울 수 있었다. "수술하는 의사는 암을 제거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기 쉬워요. 환자의 재발이나 사망, 회복 여부를 알 도구가 없죠. 그런데 흔히 수술해 왔던 상황일지라도 치료비와 회복에 걸리는 시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선택이 나을 수 있거든요. 연구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수술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찾는 연구나 다양한 중개 연구도 병행하면서요." 더불어 연구 성과는 더 이상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를 기피과로 여기지만 우리 병원이 역동적으로 의료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종 기회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후학들의 지원도 분명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곳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니까요."

환자와 협력 관계 쌓아가고 싶어

식도암은 합병증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여타 암에 비해 높다. 수술 전 환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술을 포기하면 혹여 환자가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아닌지 고심하게 된다.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 대개의 환자나 보호자는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또 의사의 사소한 제스처가 환자의 상태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제가 군의관 때의 경험이 담겨 있는데요. 아내가 수술받기로 한 날에 마침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 수술이 연기된 적이 있어요. 당연한 상황인 걸 머리로는 알아도 보호자로서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전달 과정에서 우리를 좀 더 이해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통보식이라는 게 아쉬웠죠. 의사의 표정과 말투의 무게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환자에 감정을 이입하면 냉정한 치료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윤 조교수는 굳은살이 박인 냉정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나아지는 부분을 계속 칭찬하고 환자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 관계를 쌓고 싶어요. 그래야 환자도, 저도 용기를 얻으며 힘든 투병 과정에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간들

심장검사팀 권정해 차장

전기생리학검사실에서 부정맥 시술 간호를 수행하는 모습.

"생명에 직결된 순간에 도움을 드리는 간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정맥 환자 간호

시술에 필요한 물품과 기구, 투약을 준비하고 AMIS 3.0 프로세스 세팅을 마친 오전 7시 30분. 첫 시술이 시작된다. 깜깜한 시술실에는 '삑-삑' 전기 신호만이 울린다. 의견을 조율하며 작은 신호에 집중하던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동시에 "우와!" 감탄사를 뱉는다. 고전하던 시술 치료가 예상한 부전로와 맞아떨어지면서 불안정한 맥이 순식간에 정상궤도를 그린 것이다.

전기생리학검사실에선 환자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 하며 시술 간호를 수행하고, 인공심박동기클리닉과 자율신경검사실에선 검사와 교육을 맡는다. 시술한 다음 날 기능을 점검하고 추후 관리를 설명한 뒤에도 심장재택 시범사업과 연계해 감염 여부와 부적절한 전기 충격, 응급상황 시 대처방안, 일상의 불편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로써 생명과 직결된 부정맥 증상의 불안함을 안고 있는 환자들은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부정맥 환자와는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얻는 자긍심이 커요."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동행

"선생님 아직 여기 계시네요!" 외래에서 마주친 환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15년 전 갑자기 부정맥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환자였다. 당시 심폐소생술로 생명은 살렸지만 뇌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과연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반신반의했지만 다행히 의식이 깨어나고 호전되어 제세동기를 삽입하고 퇴원했다. 이후 취업과 결혼, 출산 소식을 차례로 들고 나타난 환자가 기적 같은 삶에 감사해 할 때면 덩달아 뿌듯했다. "예전에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정맥 파트 21년 차. 시술 후에도 정기 점검이나 배터리 교체, 상담과 교육 등으로 환자들과는 끈끈한 유대감이 이어진다. 환자들이 건네는 감사 인사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자긍심이 된다.

권정해 차장이 자율신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체력과 집중이 필요해요. 나만의 목적과 전문성이 뚜렷해야 지치지 않죠."

오랜 시술 간호의 비결

2002년 내과 병동에서 심장검사팀으로 이동했다. 부정맥 시술 환자 업무는 의료기기의 특성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환자마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조율해야 한다. 그래서 1~2년 이상의 숙련 기간과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야다. 부서에선 콘퍼런스와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여러 케이스를 접하고 알아가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업무에 대한 애착도 생겨났다. 오랫동안 모은 경험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해외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고위험 시술실에선 의도치 않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기관 내 삽관이나 수혈,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긴장감과 체력적 부담이 뒤따른다. 주어진 일에 급급하면 사명감이나 전문성은 희석되고 소진감을 느끼기 쉽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과 응원을 주고 받으며 부서 워크숍, PI활동, 매뉴얼과 지침서 제작, 심장이식형 전자장치(CIED)의 수술 전후 관리 표준화 등 작은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갔다. 또한 국내·외 학술 행사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타 병원과도 교류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

권정해 차장이 송승원 사원과 전극에 의해 감지된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고 있다.

시술 환자의 인공 심박동기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모습.

"생사고락을 함께한 환자분들께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환자를 살피고 나를 다듬고

오래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정맥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맥-빈맥증후군을 진단받고 우리 병원에서 인공 심박동기 시술을 받았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한편으론 보호자로서 심장이식형 전자 장치를 삽입한 환자의 불편과 애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얼마 전에는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하던 환자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전화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병원에 혼자 갔으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시술 시기에 맞춰 중단해야 할 약물을 복용하고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깜빡하고 약을 먹고 왔어요." 예정된 시술이 취소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 시술 일정을 연기하면서 머릿속엔 여러 질문이 떠오른다. '안내문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면 좋을까? 내원 전 다시 한번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 AI로 자동 알림 약물중단 관련 안내를 보낼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면 21년째 반복되는 검사실의 일상도 매일 새롭다. 감사함을 담고서.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 ②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

왜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답은 쉽습니다.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심폐 지구력을 키우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관절에 큰 부담 없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전거를 1년 이상 꾸준히 타면 심장병과 당뇨병 발병률은 50%, 고혈압 발병률은 30%가량 줄어든다고도 합니다.

지방 연소에 효과적인 자전거

자전거의 운동 효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체중이 70kg인 성인이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9km/h로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 700kcal, 빠르게 걸을 때 400kcal, 수영을 할 때 500kcal의 열량을 평균적으로 소모합니다. 25km/h로 실내자전거를 타면 780kcal의 열량을 소모해 가장 높은 운동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표1).

실내자전거(25km/h)	780kcal
달리기(9km/h)	700kcal
수영(자유형)	360~500kcal
테니스	360~480kcal
빨리 걷기	360~420k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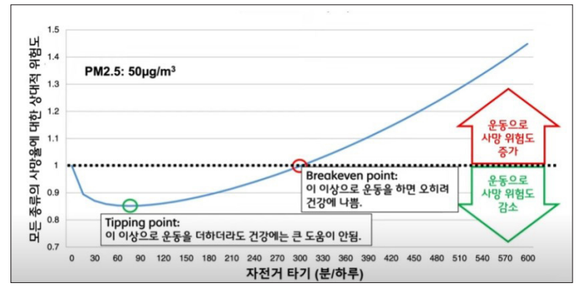
[표1] 70kg 체중 성인 기준 운동별 칼로리 소비량

어떤 운동이 지방을 더 잘 태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러닝머신과 실내자전거의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비슷하지만 실내자전거를 타면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보다 덜, 그리고 늦게 지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죠. 야외에서 자전거를 탈 땐 실내에서 탈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타면 허벅지가 굵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따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륜 선수들처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경우 허벅지가 굵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투르 드 프랑스와 같은 장거리 대회에서는 기어비gear ratio를 가볍게 해서 빠른 속도로 페달링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날씬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기어비로 가볍게, 빠른 속도로 페달링을 한다면 튼튼하면서도 날씬한 다리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안장이 지속적으로 회음부를 압박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탈 땐 중간중간 내려서 휴식을 하고, 자전거 타기를 마친 뒤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보호 패드가 부착된 전용 하의를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죠. 2018년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에 게재된 한 논문에는 PM2.5(초미세먼지) 환경에서 쉴 때와 가볍거나 격렬하게 자전거를 탈 때의 혈관 지름, 혈압, 혈액 내 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운동할 때 실험 대상자들에게서 혈관 확장, 혈류량 증가 등이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증가한 산화질소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보다 2년 전인 2016년 한 예방의학 저널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하루 1~2시간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그림1)



[그림1] 초미세먼지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의 운동효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자전거는 참 좋은 이동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다른 법규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때에 한해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안전표지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그림2)

[그림2]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는 주행 중에 1차선 또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죠. 하지만 자전거는 차도의 가장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 주행하기 때문에 1, 2차선으로는 갈 수 없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다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 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로를 이용해 건널목을 두 번 건너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왼쪽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해야 합니다. 좌회전 못지않게 우회전도 중요합니다.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오른쪽에 붙어 우회전을 할 때 자칫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헬멧 착용입니다. 자전거 탑승자의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률이 11.6%로 매우 낮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헬멧은 꼭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필자로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가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을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불균형한 자세로 인해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직종에 따라 작업 상황, 조건,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근육 경직, 약화로 인해 담에 걸리거나 어깨와 허리 통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예방법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실내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및 이완법을 소개한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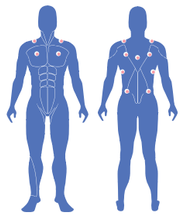
스쿼트 Squat

하체 기반의 대표적인 코어 트레이닝 방법이다. 다관절 운동으로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의 협응력과 하체, 코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벽에서 30~50cm 거리를 두고 어깨너비로 두 발을 벌린 채 선다.
2.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모두 닿도록 벽면에 기댄다.
3.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구부리고 5~10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기를 10회 3세트 반복한다.

*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사람은 무릎 각도를 30도 정도 덜 굽힌다.

어깨 스트레칭 Shoulder Str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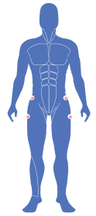


오버헤드 동작은 척추뼈를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다. 등, 어깨, 가슴 근육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1. 손을 벽면이나 의자에 대고 팔을 편다.
2. 팔로 벽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며 10~30초 유지한 후 몸을 일으켜 돌아오기를 3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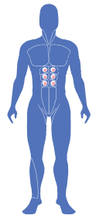
* 근육을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엉덩이를 빼되, 등이 너무 굽지 않도록 한다.

중둔근 근력 강화 Gluteus Medius Strength



중둔근은 골반과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근육이다.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일상 활동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한 쪽 발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들어 올려 90도 각도를 맞춘다. 이때 바닥에 딛는 다리 쪽으로 중심을 잡는다.
2. 반대편 발은 몸과 일직선을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디뎌 중심을 잡는다.
3. 5~10초 정도 유지한 후 벽에 올린 다리를 내려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10회 3세트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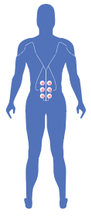


벽 플랭크 Wall Plank

플랭크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전신 근육, 특히 몸통의 전면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1. 손바닥을 펴고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하여 벽에 댄다.
2. 양 발을 뒤로 빼면서 어깨가 90도가 되도록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다.
3.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도록 몸을 뒤로 밀어내며 10~30초 정도 유지한 후 몸을 풀어 원 위치로 돌아오기를 3~5회 반복한다.

의자 플랭크 Reverse Plank on Chair



리버스 플랭크는 전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기본 플랭크와 다르게 몸통의 후면 근육을 단련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다.

1. 벽에 의자를 고정시킨다.
2. 의자 앞에서 뒤를 돌아 양손으로 의자 모서리를 잡는다. (손등이 위로 향하도록 잡는다.)
3. 발을 앞으로 뻗어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팔은 쭉 편다.
4. 10~30초 정도 유지한 후 원 위치로 돌아오기를 3회 반복한다.

※ 사진·자료 제공 : 건진운영팀 심원섭 주임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심폐소생술 교육봉사

지식 나누며 보람 얻어요

심장병원간호팀 지하영 주임

'업무 외에 다양한 일을 벌여보자!' 야심 찬 새해 계획은 벌써 3번째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때마다 기분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지하영 주임(왼쪽 첫 번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원내 직원봉사 공고를 보고 신청한 간호사 다섯 명과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배정받았다. 살짝 떨리던 마음은 교육 전에 아산간호봉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함께 리뷰하면서 차츰 진정됐다. 우리는 임산부,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30분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을 교육했다. 심정지 상황을 인식하고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설명했다. 모형에 직접 연습해보자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네요." "누르기만 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생생한 소감이 이어졌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압박 위치와 높이, 속도 등을 세세하게 알려드렸다. 자동제세동기가 낯선 분들께는 평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아동이 작은 물건을 입에 넣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과 대처법 등도 안내했다.

그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만 했지 직접 교육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오랜만이어서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다들 집중해서 듣고 열띤 반응을 보여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의욕도 들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유익했다는 참석자분들의 마지막 인사까지 완벽한 30분이었다.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니, 앞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찾은 듯하다.

굿바이 콩글리시

우리 병원을 찾는 아랍 환자나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외국인 환자들은 조용한 1인실을 선호한다. '1인실' '2인실'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 one-person room, two-person room으로 직역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private room, semi-private room을 쓰자. 다인실은 'ward room'이라고 한다.

1인실, 2인실, 다인실

- 1인실 private room
- 2인실 semi-private room
- 다인실 ward room

Let's Talk

A Can I request a private room?
1인실 요청해도 될까요?
B Yes, but it will cost extra. Is that okay?
예, 추가 비용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A That's fine. 괜찮습니다.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환자의 상태를 물을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영어로 '불편함'은 'inconvenience'와 'discomfort'인데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불편, 후자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뜻한다. 환자에게 '어디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데 없으세요?'라고 물을 때는 'discomfort'를 쓰자.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 Do you have any inconvenience?
- Do you have any discomfort?

Let's Talk

A How are you feeling today?
Do you have any discomfort?
오늘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데 있으신가요?
B My back feels a little sore.
등이 좀 쑤셔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이다원 주임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발레리나 환자의 미소'를 읽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간호의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적정진료팀 오은주 차장

'AMC IN(人)sight - 거창한 결심 대신 매일의 노력으로'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3기 대장·직장암 환자들의 완치율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높은 완치율을 뒤로하고 나머지 20%의 재발 환자들에게 시선을 두는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이 환자들에게 잘 전해져 예후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총무팀 박혜진 주임

어린이병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았군요. 중증 환아 6만 명 수술,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체제로 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의 응급 환아 45만 명 치료,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환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린이병원 진료과와 병동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약제팀 고아라 사원

'마음건강노트 - 죽음을 마주하는 과정에서'를 읽고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니 두렵고 무섭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암병원간호팀 이신혜 주임

병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우리의 마지막 추억 쌓기'를 읽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한 일과 느낀 점이 자세히 적혀있어서 좋았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참 아름답습니다.

SNS 돋보기

[백세수업] 눈물길 절대 닦지 마세요

출연: 안과 사호석 교수

평소 별다른 이유없이 자주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겨울에 특히 심해졌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좋아져 별다른 치료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눈물길이 막혀 생기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백세수업에서는 막힌 눈물길을 뚫어 주는 눈물길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행의사]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출연: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주 조교수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과 종양이라는 부담스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진료과 이름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하며 내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연주 조교수가 평소 진료실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방사선 치료의 기본 개념과 최신 치료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